〈Venture Digest〉는 벤처기업의 든든한 디딤돌이 되어드립니다.
신제품, 신기술, IR소식 등 알리고 싶은 뉴스를 보도자료(기사, 사진)와 함께 협회 홍보팀으로 보내주세요.
협회 홍보팀 박미선 주임(02-6009-4100, 내선 301, Fax. 02-6009-4115, E-mail : prsun@kova.or.kr)

휴맥스, 42인치 PDP TV 생산

휴맥스(대표 변대규)가 세계 처음으로 유럽 디지털 지상파 방송규격(DVB-T)에 맞춘 셋톱박스 내장형 42인치 PDP TV(모델명 PAU-42THD)를 개발 완료하고 출하에 들어갔다.

이 제품은 유럽 디지털 지상파 방송규격을 수용하면서도 HD급 고화질 디지털방송을 추진하고 있는 호주시장의 방송특성을 감안, HD급 셋톱박스를 내장한 것으로 대당 소비자가는 600만원(원화 기준) 수준이다.

별도 첨단 이미지 프로세서를 채용, 고화질을 구현했으며 트루서라운드(Trusurround) XT기술을 통해서 3D 입체 음향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다양한 모드로 화면을 분할할 수 있으며, DVI(Digital Visual Interface)를 통해서 디지털 영상과 음향을 완벽하게 재생할 수 있다.

이 제품은 11월경 첫 선을 보일 예정으로 이미 지난 20일과 26일 시드니와 멜버른에서 순회 로드쇼가 개최됐다.

다날, '콜백 URL SMS' 특허 취득

다날(대표 박성찬)은 현재 무선인터넷을 통한 콘텐츠 다운로드와 웹투폰(Web to Phone)방식의 다운로드에 사용되고 있는 '콜백 URL SMS' 운용에 관한 특허를 취득했다.

콜백 URL SMS는 상대방의 휴대폰 등 무선데이터통신 단말기에 인터넷 주소를 포함하는 정보를 전송하면 상대방은 키를 눌러 전송받은 주소로 접속, 콘텐츠를 다운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이미 대다수의 웹투폰(Web to Phone) 방식과 무선인터넷을 통한 '선물하기' 등에도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다날은 "최근 무선인터넷망 개방과 관련, 콜백 URL SMS의 허용방식이 중요하게 거론되고 있다"며 "무선인터넷 포털 및 독립 콘텐츠 제공자(CP)의 무선인터넷 페이지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콜백 URL SMS가 꼭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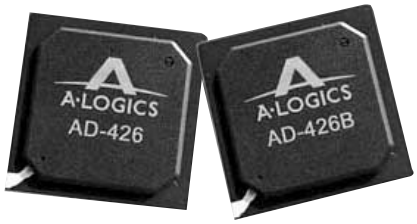
아이디스, 아시아권 최고 성능 DVR로 선정

아이디스(대표 김영달)는 회사의 DVR 제품이 보안장비 전문 미디어그룹에서 선정한 아시아권 최고 성능 제품에 뽑혔다고 밝혔다.

아이디스에 따르면 보안장비 전문 미디어그룹인 '에이앤에스미디어'의 아시아판은 9·10월호에서, 중국 및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잘 알려진 브랜드를 중심으로 DVR 성능 테스트 결과를 공개했다. 출품된 DVR 가운데 아이디스의 'SDR410'은 총 20점 만점에 19점을 얻어 최고의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형 ▲사용자 편의성 ▲녹화화질 ▲다양한 기능 등 4개 항목에 각 5점 만점으로 배점된 이번 심사에서 아이디스 제품은 화질을 제외한 모든 평가에서 만점을 받았다.

에이앤에스미디어는 세계적인 보안장비 전문 잡지로 각 대륙별로 총 6개의 보안장비관련 출판물을 발간하고 있다.



에이로직스, 고성능 영상처리칩 2종 양산

에이로직스(대표 김주덕)는 고성능 영상처리칩 'AD-426'과 'AD-426B' 2개 모델의 양산을 시작했다.

이번에 양산되는 모델은 DVR 설계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카메라 4개의 입력을 지원하는 AD-426B와 8개, 16개의 카메라 입력을 지원하는 AD-426으로 구성됐다.

이 제품은 MJPEG 코덱 2개를 내장해 기존 제품 대비 2배 빠른 파일 압축 성능을 낼 수 있다. 영상데이터의 저장 장치인 하드디스크 제어 기능, 영상데이터 녹화시 음성도 녹음할 수 있는 오디오 녹음 기능, 네트워크를 통한 액세스를 지원하는 기능도 포함됐다.

녹화와 재생을 동시에 지원하는 듀플렉스 기능, 듀플렉스 동작시 네트워크를 통한 액세스가 가능한 '트리플렉스'(Triplex) 기능도 지원된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에임넷, 신개념 실시간 주문시스템 개발

전화와 디지털TV, 인터넷을 통합한 새 개념의 실시간 주문시스템이 개발됐다.

에임넷(대표 손창호)은 최근 피자나 치킨, 족발 등 기존 전화에만 의존하던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DTV · 인터넷 · 홈네트워크 · 1588 전화를 통합해 고객의 주문에 대응할 수 있는 '오더유(http://www.orderu.com)' 시스템을 개발, 광주 지역에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가정과 직장에서 DTV나 인터넷, 1588 대표전화로 음식을 주문하면 오더유 가맹점으로 등록한 배달음식점에 설치한 단말기로 주문 내용이 실시간 출력돼 상품을 배달하는 시스템이다. 회사측은 DTV는 물론 내년에 본격화할 홈네트워크 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에임넷은 광주지역 서비스에 이어 올해 안으로 강원, 부산, 대전 등 전국 4~5개 지역에 지사를 잇달아 개설할 예정이다.

에이디정보통신, 책 읽어주는 기계 개발

에이디정보통신(대표 박민철)은 바코드기술 전문업체인 에이디트러스트솔루션스(대표 이동인)와 공동으로 '보이스아이 플레이어'를 개발했다.

보이스아이 플레이어는 고밀도 2차원 바코드 기술을 이용해 디지털정보를 압축저장한 칩 형태의 '심볼'과 이를 목소리로 읽어주는 플레이어로 구성된다. 따라서 시각장애인 · 저시력자 · 노인들이 책에 부착된 보이스아이 심볼에 플레이어를 올려놓으면 책의 내용을 사람의 목소리로 들을 수 있다.

제품에 사용되는 바코드는 기존 바코드에 비해 10배 이상의 저장능력을 가지며 텍스트 · 음성 · 그래픽 등의 데이터도 기록할 수 있다.

에이디정보통신 관계자는 "도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을 함께 담은 제증명 발급, 티켓, 물류 등 다양한 산업에 적용이 가능해 시각장애인의 인쇄물 정보격차 해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VENTURE NOW

큰사람컴퓨터, 무선 영상전화(VoIP) 서비스 출시

큰사람컴퓨터(대표 신은선)는 한빛아이티, 이텔레피아와 공동으로 무선인터넷 환경에서 스마트폰을 통한 영상전화 서비스를 선보였다.

유선에서 PC모니터를 통한 영상전화 서비스는 선보인 적이 있으나 무선인터넷 환경에서 스마트폰을 통한 영상전화 서비스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서비스는 전국 1만2000개의 네스팟 무선랜 환경에서 스마트폰 단말기(현재는 HP rw 6100만 가능)로 0505 착신번호를 부여받아 영상전화가 가능하며 네스팟 이외의 지역에서는 일반 이동전화로 사용할 수 있다. 회사측은 "기존 영상패킷 전송 압축률을 대폭 강화, 국제전화의 경우 국제 전용전화보다 70~90%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일반 전화요금도 VoIP 수준으로 저렴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티브이로직, 방송용 포터블 LCD 모니터 개발

디지털 방송장비업체인 티브이로직(대표 이경국)은 HD급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방송용 비디오신호를 처리하는 방송용 포터블 LCD 모니터 8.4인치 제품(모델명 LVM-084)을 국내 첫 개발했다.

이 제품은 디지털 방송시스템에서 사용되는 디지털 HD급, SD급 영상신호뿐만 아니라 HD 아날로그 컴포넌트신호, SD 아날로그 컴포넌트, S-비디오, 컴포지트 등까지 모두 디스플레이할 수 있다.

또 19인치 '랙 마운트' 방식은 2대의 모니터를 4RU(1RU는 약 45㎜)에 장착할 수 있어 중계차 및 좁은 공간에 사용하기 편리하다. 외부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이동형 가방을 쓰면 야외촬영시에도 쓸 수 있다.

퍼스널텔레콤, 中 DMB부품시장 진출

지상파DMB 개발업체인 퍼스널텔레콤(대표 박일근)은 최근 중국 광둥성 소재 포산방송국과 지상파DMB 수신모듈 수출계약을 하고 지난 29일 1차분 5000대를 선적했다고 밝혔다.

수출 제품은 차량용 DMB 수신기에 쓰는 모듈(모델명 DMR732)로서 국내 지상파DMB와 유사한 규격이지만 비디오 규격으로 윈도미디어 비디오(WMV) 9방식 AV디코더를 채택했다.

중국 포산방송국은 우리나라의 지상파DMB와 유사한 형태의 실험 방송을 추진해 주목받아 왔다. 업계는 포산방송국이 아직 방송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중국의 방송시스템과 단말기, 모듈시장의 선점 여부를 가늠하는 잣대로 보고 제품 공급을 타진해왔다.

퍼스널텔레콤은 지난해부터 텍사스인스트루먼츠(TI)와 함께 중국 DMB 시장을 공략해왔으며 최근 8개월간 중국용 모듈 개발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